

동반자의  
여행기록



# 첫번째 코스

포동 새우개마을

동편장승 > 동편우물 > 당집

방산등

아트워크길 > 청자와백자 요지





### 동편장승

2019년 새롭게 이사를 한 동편장승.  
마을 입구를 지키며 안좋은 기운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마을 지킴이.  
새 터에서 오래오래 마을을 지켜주렴.



### 동편우물

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식수였던 우물.  
잔물 많은 바닷가 마을이라 더 중요했고  
당제에 쓰여 '고사먹는 우물'이라고 불리었다.  
옛 모습이 사라져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



## 나만의 장승 그려보기

마을의 입구에 서서 마을로 들어오는 액운을 막아주던 장승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를 지켜주는 나만의 장승을 그려보자.





##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당집

오이도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나쁜 액운을 막기 위해 심은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당제를 지내던 당집을 볼 수 있는데, 당제는 마을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대동제의 활동이었으며, 매년 음력 정월 초순과 7월 초순에 두 차례 3일 동안 드렸을 정도로 커다란 마을 행사였다.



제일이 확정되면 이를 전에 우물을 청소하고 당제가 끝날 때까지 뚜껑을 덮어 두었다. 둘째 날인 당제 전날 제주와 보조자들은 당집을 청소하고 제물을 준비해 저녁에 당에 바쳤는데, 이를 '피고사'라고 하였다. 셋째 날인 당제일(堂祭日)에는 당제 전후에 메[제사 때 신위(神位) 앞에 놓는 밥] 24그릇을 올렸다. 당제가 끝나면 제주는 당집에 남고 보조자 4명이 두 패로 나누어 제물을 지고 두 곳의 당우물로 가서 우물 고사를 지냈다. 당제에는 음식을 많이 차려서 먹거나 놀거나 하지는 않으며 엄격한 관례대로 제를 진행함으로써 엄숙하게 동네의 안위와 농사의 풍년을 빌고 어민들의 풍어를 기원하였다.



제사가 끝나면 제물로 썼던 음식을 동네 가구 수대로 몫을 나누어 골고루 음복(飲福)하였다.

「출처 : 포동 새우개 당제 [浦洞-堂祭] (한국항포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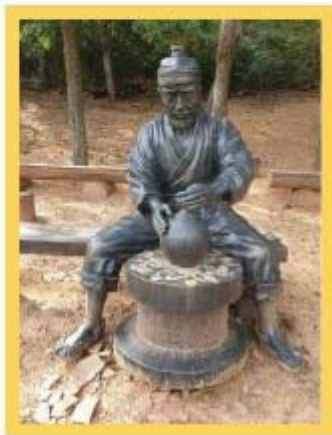
2006년 이후 당제가 중단되었다가, 중단된 지 12년만인 2018년 음력 7월 2일과 3일에 다시 당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여 백



## 방산동 아트워크길

방산동 청자와 백자의 요지로 가는 방산동 아트워크길.  
아트워크길의 출발점인 포리초등학교 도자숨걸문을 지나면  
시골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으며, 가마터로 가는 길 곳곳에 도자 예술품을 만날 수 있다.



##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국가사적 제 441호로 통일신라시대 말에서 고려 초기의 가마터.  
벽돌을 쌓아 만든 월주요 방식으로 중국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마터를 운영하는 힘있는 호족세력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 백

## 에코뮤지엄 (Ecomuseum)이란

본래 생태 및 주거환경을 뜻하는 에코(eco)에 박물관이란 뜻의 뮤지엄(Museum)이 결합된 단어이다.

하지만 지역 고유의 문화와 건축유산, 생활방식, 자연환경 등을 그대로 보존 계승하면서 이를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독특한 형태의 박물관이다.

주민들이 직접 박물관 운영에 참가할 뿐 아니라 전시 이외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붕없는 박물관 또는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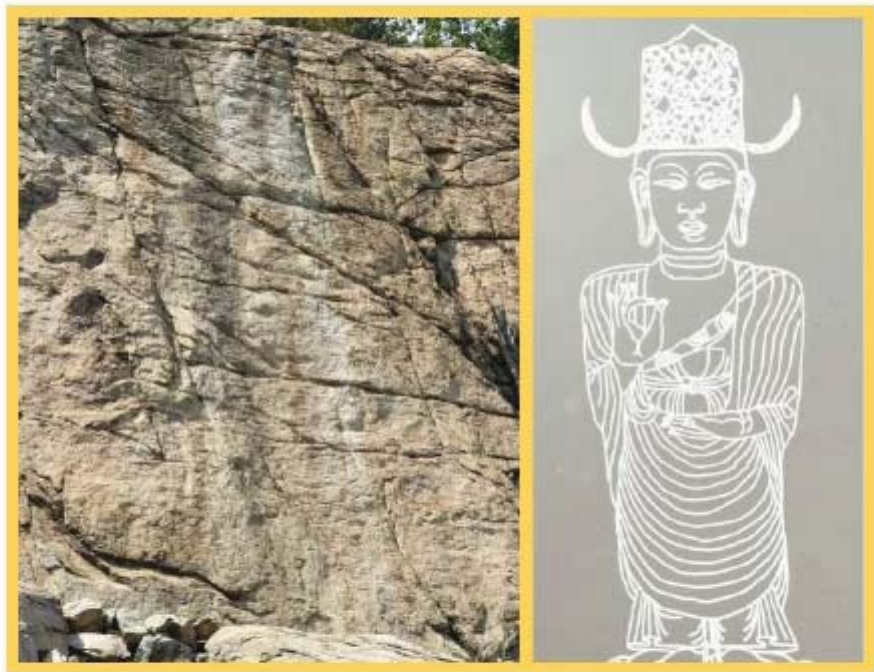
현재 시흥의 에코뮤지엄은 갯골생태공원, 호조벌과 연꽃테마파크, 그리고 곰솔누리숲을 중심으로 다양한 에코뮤지엄 사업과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 여행은 잊혀져가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시흥 곳곳의 동네를 여행해 봄으로써, 그 지역의 가치를 확산하고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

# 두번째 코스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 소산서원 > 하연선생 묘





##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보물 제 1324호 문화재로 고려시대 소래산 장군바위 암벽에 부처가 서 있는 모습을 얇은 선으로 새긴 총 높이 15m의 거대한 우리나라 최대의 석불 조각이다.

소래산에 거대한 마애불상이 제작된 배경에는 고려 초기 인주이씨 호족 세력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부근의 소래포구는 삼국시대 이래 중국 왕래에서 중요한 항구이자 고려시대 개경과 연결되는 중부 지역 수운(水運)의 요지였는데, 고려 왕실이나 이 지역의 호족 세력이 해상 안전을 기원해서 거대한 마애불상을 조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오랜 세월 풍화작용으로 형상이 희미해져 알아보기 힘들지만, 기법과 회화적 표현이 뛰어난 세련된 작품이다. 더 희미해지기 전에 많이 보고 담고 가길 바래 본다.

여 백



소산서원

조선 세종 때의 명재상 하연(河演) 선생을 봄가을로 향사하는 곳이다.

1455년 소산재(蘇山齋)라는 재실을 지었으나 임진왜란 때 불에 타버렸다. 1467년에 하연의 셋째아들 우명(友明)이 이곳에 영당을 세우고 소산재를 다시 지어 봄가을로 향사를 지냈다. 1963년 지역 유림과 후손들이 쇠락한 소산재를 중건하였고, 1995년 중건하면서 소산서원(蘇山書院)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는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과 아들 하우명의 효심을 본받아 주민들의 '효' 예절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연 선생묘

향토유적 제 3호로 조선 전기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하연(河演) 선생의 묘이다. 묘는 소래산 중턱 남쪽 기슭에 있는데, 풍수로 보아 무공단좌형(武公端坐形)으로 후세에 인재 부귀가 끊어질 것을 명당지로 알려지고 있다. 하연 선생이 돌아가신 후 묘자리를 찾다가 지금의 자리에 계란을 놓았는데, 다음날 병아리가 깨어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을 명당자리라 하여 하연 묘를 쓰게 되었고, 이후 이 일대를 계란 마을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소산서원의 의미를 되새기며 색을 칠해보자.



※서원이란?

인재를 키우고 선현·향현을 제사 지내며 유교적 향촌 질서를 유지, 시정(時政)을 비판하는 사람(士林)의 공론(公論)을 형성하는 구실을 하는 곳으로 지금의 사립지방학교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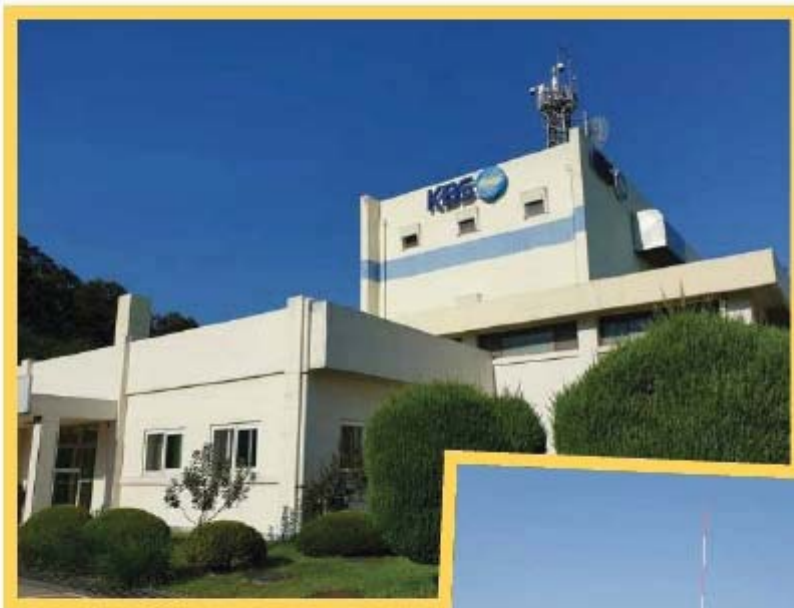
이곳은 어디일까요?



# 세번째 코스

KBS소래송신소 > 호조벌 > 관곡지 > 연꽃테마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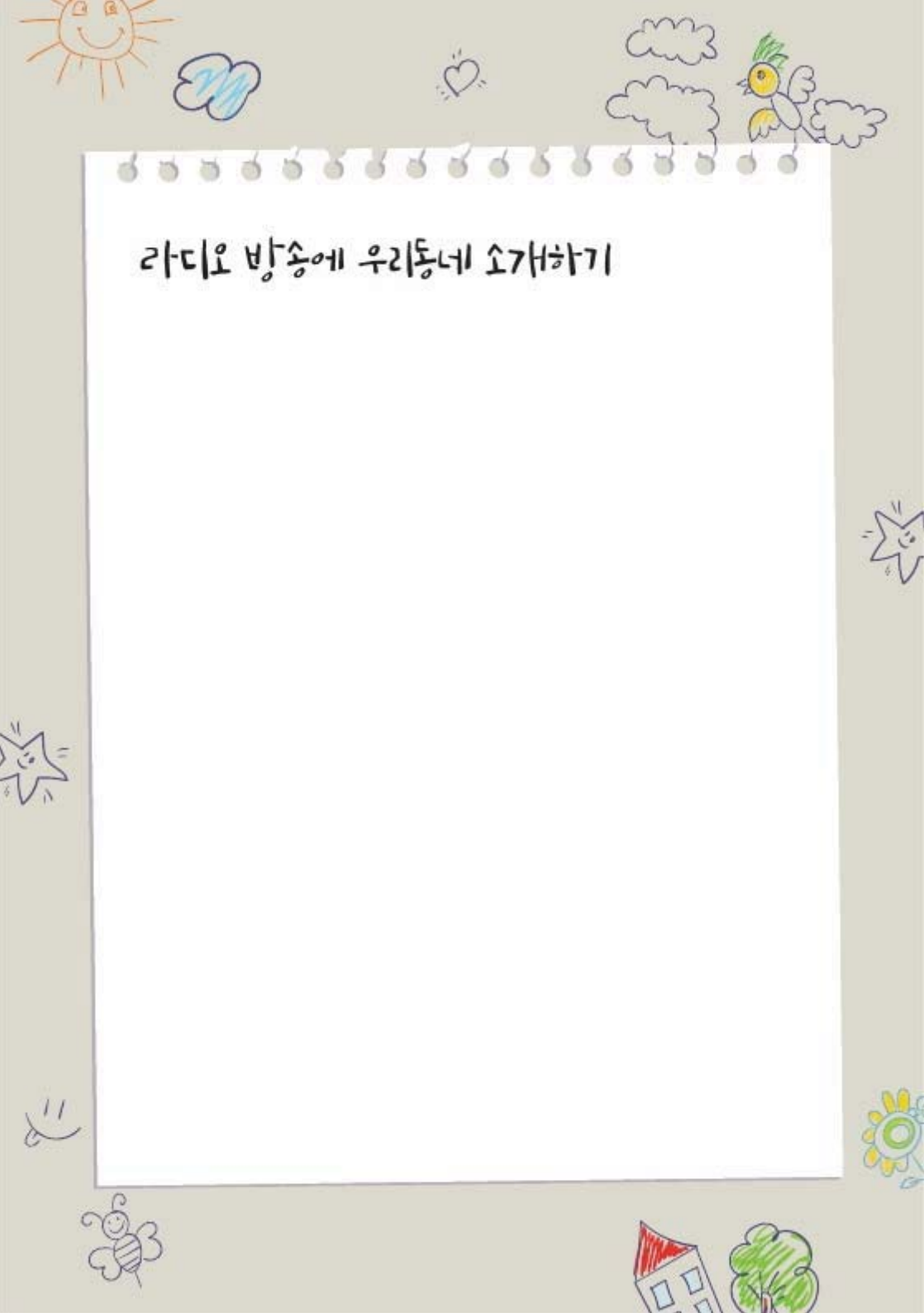




## KBS소래송신소

1971년 3월 개소한 이후 난청 지역 해소 및 북한의 전파 침투를 막았고, 현재는 AM 라디오 방송 뿐만 아니라 서남권 TV 방송까지 송출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전시, 재난 상황 그리고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선 라디오가 중요한 매체이기에 국가 중요시설 '가'급 기관으로 군부대, 경찰 그리고 시 기관들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장 빠른 정보를 전달하지만, 국기대와 잘 가꾸어진 정원을 보면 시간이 조금은 더디 흐른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라디오 방송에 우리동네 소개하기



## 호조벌

호조벌은 300년 전 간척의 역사가 있는 약 150만 평의 농경지로 조선시대 국가재정 담당이었던 호조에서 만든 벌판이란 의미로 붙여졌다. 간척을 위해 호조방죽을 쌓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산사람'을 묻었다는 인신공양 설화가 있다.

현재는 시흥시 최대의 곡창 지대로, 지역의 특산미인 '햇토미'가 여기서 생산되고 있고, 초·중·고 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과거 농업 사회에서는 시흥의 식량창고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는 시흥 시민에게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장소로 큰 의미를 줄 것으로 보인다. 보통천 물길 따라 걸으면 천연기념물 저어새도 볼 수 있고, 곳곳에 숨겨진 작품들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여 백



관곡지

조선 시대 명신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농학자였던 강희맹 선생이 중국 남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전당지에서 전당연의 씨를 가져와 처음으로 발아한 연못이다. 이후 연 재배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연꽃이 피는 곳이란 의미로 '연성(蓮城)'이란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은 안동권씨 사택으로 들어가 볼 순 없지만, 담장 너머로 관곡지를 볼 수 있다.



연꽃테마파크

관곡지가 갖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기리기 위해 연꽃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연·수련·수생식물 등은 물론 주변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연꽃은 7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하여 8월 중·하순경에 절정을 이루며, 9월 중·하순까지 볼 수 있다.

## 연꽃 이야기

내가 오직 연을 사랑함에 진흙 속에서 낚지만 물들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겨도 오염하지 않으며,  
속이 소통하고 밖이 곧으며 덩굴지 않고 가자가 없읍이다.  
향기가 멀수록 더욱 맑으며 우뚝 깨끗이 서 있는 품은  
멀리서 볼 것이요, 다뭇하여 구경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연은 꽃 가운데 군자라 한다.

중국 북송시대의 유학자 주돈이 [매연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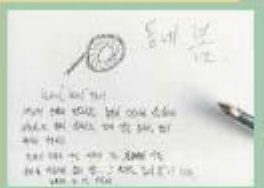
소래산 등산로를 오르니  
암벽에 병풍처럼 그려진 마애불상이 있다.  
어긋난 비울의 입면도와는 다르게  
거대하고 섬세한 그림이  
마치 장군처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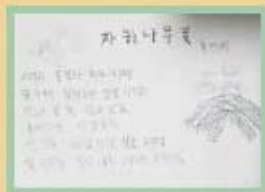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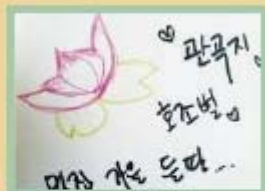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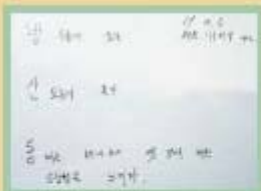


하얀색의 묘  
흙나 광릉처럼 잘 조성되어 있었고  
후손들의 장형이 느껴졌다.  
산수를 둘러보니수가 봐도 명당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km의 아트워크길을 따라  
방산등가마터로 가는길  
60년대 개교한 포리초등학교를 지나  
방산도자승경원을 통해 갈 수 있다.





부분별한 발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발굴전 상태로 복원하고 덮어버린 상태여서 얼핏보게 되면 마치 무슨 흉처럼 보이는 것이 아쉽기도 하다.

주변 가까이 숨어 있는 보석같은 마을 여행지를 알게 되고 마을여행의 묘미를 느끼며 오롯한 시간의 흐름들이 만들어 낸 역사를 통해 삶의 지혜와 겸손함을 배웠다.

당집 앞쪽 느타리무와 은행나무에 처놓은 색색의 띠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시선을 끈다.

시흥새민이 된지 5년차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오이도, 갯골생태공원과 관곡지를 돌고 있는 연꽃테마파크 정도만 알고 있었음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무한한지 돌아 보게 되었다.

# 동반의 여행기록